

May 2016 subject reports

## Korean A Literature

### Overall grade boundaries

#### Higher level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19	20-35	36-46	47-58	59-71	72-82	83-100

#### Standard level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16	17-30	31-43	44-56	57-67	68-79	80-100

### Higher level internal assessment

####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5	6-10	11-13	14-17	18-21	22-25	26-30

### 제출된 작품의 범위와 적합성

Commentary 의 시 작품은 주로 김소월, 한용운, 윤동주의 시가 대부분이었고 정지용과 황동규의 시가 그 다음을 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소월의 시 작품을 공부한 학교가 많았다. 대부분 알맞은 길이의 시들로 학생들이 발표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너무 짧은 시의 경우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는 8 행으로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어 학생들이 시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올 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시인의 작품이 아닌 여러

시인의 작품을 공부한 학교도 있었다. 시의 경우 한 시인의 10 편에서 15 편을 한 작품으로 간주하고, 단편소설인 경우는 한 작가의 5 편에서 10 편 사이를 한 작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Discussion 에서 주로 다룬 장르는 단편 소설이 많았다. 현진건, 김동인의 단편소설이 주를 이루었고 김유정의 작품들도 다수 있었다. 유치진의 희곡작품 ‘토막’이 올 해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수필 장르로는 법정의 ‘무소유’와 피천득의 ‘인연’이 주를 이루었다. 간혹 Discussion 에서 다룬 작품의 발췌문과 그에 따른 guiding 질문을 준비한 학교가 있는데 이는 Discussion 부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부적절하다.

##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한 학생의 성과

### Criterion A: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oem

발췌된 시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외운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시인의 생애나 역사적 배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시의 형식과 내용을 잘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을 시에서 근거를 찾아 조리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전달하고자하는 시의 특징을 근거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미리 준비한 서론이나 시대적 배경이 항상 좋은 점수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경우 subsequent questions 에서 효과적인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본인이 발표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도 모른채 여러 자료에서 외워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발표과정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개인의 이해를 드러내지 못한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발표는 듣는 이에게 설득적으로 다가오며 발표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좋은 점수로 이어질 수 있다.

### Criterion B: Appreciation of the writer's choices

시에 드러난 수사법과 같이 기술적 용어를 언급하고 있으나 언급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이것은 은유법이다. 직유법이다.’와 같이 언급은 많이들 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사법의 사용이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시와 관계없이 시의 장르적 특징이나 심상의 정의 등을 설명하는데 발표의 상당부분을 할애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에 드러난 문학적 특징을 따로 설명하려하지 말고 시의 전체적 맥락에서 어떤 효과를 지니느냐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시의 형식이 어떻게 내용적인 면과 잘 부합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 Criterion C: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ommentary

여전히 시를 분석하기에 앞서 시인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의 장황한 설명을 길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인의 소개로 발표를 시작하는 것은 괜찮으나 많은 경우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듯하며 이런 부분이 길어지는 것은 효과적인 구성에 적절하지 않다. 시 분석에 꼭 필요하다면 시를 분석하는 과정에 적절히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많은 학생들이 행별로 분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 행을 분석하고 바로 발표를 마치는 경우는 효과적인 발표 구성이라 볼 수 없다. 소주제를 몇 개 정해서 시를 분석하는 경우가 훨씬 효과적인 구성이 될 수 있다. 너무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지 말고 형식과 내용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느낌이나 교훈 위주로 발표를 진행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본인의 감상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 Criterion 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work used in the discussion

교사의 질문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이고 대략적인 작품의 소개가 위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줄거리를 설명하고 주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작품의 직접 인용을 들어 가며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품 속 근거를 들어 답을 해야 한다. 간혹 학교에 따라 **discussion** 부분의 발췌문과 질문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토론을 통한 학생의 이해가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또 다른 **commentary** 가 아님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너무 열려 있는 질문, 예를 들어 ‘학생은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혹은 ‘본인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등과 같은 질문은 학생의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 **Discussion** 부분은 시 외의 다른 장르의 작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 다른 시로 했을 때는 3 점을 **maximum** 점수로 한다. 간혹 소설과 수필 또는 희곡 장르의 작품을 균등하게 다루는 학교도 있는데 한 장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작품의 단편적인 줄거리나 사건위주의 토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 Criterion E: Response to the discussion questions

토론은 질문만 해서는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 간혹 학생의 답과 상관없이 학생의 답이 끝나면 기계적으로 다음 질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는 학생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의 답을 잘 듣고 거기에 맞는 효과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질문 하나에 학생의 일방적인 발표가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토론이라 볼 수 없다. 학생의 긴장 완화를 위해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깊이 있는 것들로 이끌며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상을 묻는 질문들은 피해야 한다.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끄는 토론이 효과적이다.

### Criterion F: Language

읽는 것과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여러 **moderator** 들이 **examiner report** 에 언급하고 있는 공통된 부분이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을 보고 읽는 것 같다는 것이다.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발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학교들은 이 점을 유념해서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긴장으로 인해서 머뭇거리거나 더듬는 것은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이것이 지나치면 자신감 없는 발표로 점수에 반영이 되기도 한다. 매년 평서문으로 발표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평서문으로 발표를 마치고 교사의 질문에는 존댓말로 하는 등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발표는 듣는 대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구어체 존댓말로 해야 한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IB Subject Guide** 와 **feedback form** 을 항상 살피도록 해야 한다.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feedback form** 을 참고하는 것으로 수정될 수 있다.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문학은 해석에서 많이 열려 있고 개인의 독창적인 분석을 요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일방적인 수업보다는 토론과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commentary** 부분과 **discussion** 부분을 자연스럽게 20 분 동안 이어나가고 있으나 시간을 안배하는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보인다. 간혹 학생의

commentary 가 8 분을 넘어가고 subsequent questions 없이 바로 discussion 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학생의 commentary 가 8 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학생의 점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교사는 학생의 commentary 가 8 분 가량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간혹 교사가 녹음을 시작할 때 학생의 수험번호, 이름, 나아가 작품과 guiding questions 까지 대신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이 본인의 수험번호와 이름을 말하고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Guiding questions 는 어디까지나 학생에게 commentary 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학생이 guiding questions 에 답하는 형식의 commentary 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학생의 commentary 부분에서 guiding questions 에 대한 답이 설명되었다면 subsequent questions 에서 guiding questions 를 반복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Guiding questions 는 두 개를 넘지 말아야 하며 각각 형식과 내용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해야 한다. 간혹 한 질문에 여러 가지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한 질문에 한 가지만 묻도록 해야 한다.

Discussion 부분의 작품은 학생에게 사전 노출되지 말아야 하는데 간혹 미리 준비된 또 다른 commentary 를 발표하는 듯한 경우도 있다. 학생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discussion 이 되어야 한다. 지나친 줄거리와 사건위주의 토론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학생의 작품에 대한 호불호와 감상을 묻는 질문도 적절하지 않다.

## Standard level internal assessment

###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4	5-8	9-12	13-16	17-19	20-23	24-30

### 제출된 작품의 범위와 적합성

장르별로는 시가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김소월, 윤동주, 한용운의 작품이 많았다. 김수영의 시도 올해 Standard Level 에서 많이 다뤄졌다. 대부분 알맞은 길이의 시들로 학생들이 발표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너무 짧은 시의 경우,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는 8 행으로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어 학생들이 시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현진건의 단편소설과 법정과 피천득의 수필 작품도 시 다음으로 많이 다뤄졌다. 매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여전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한 작품의 정의이다. 특히 시와 단편소설인 경우 여러 작가의 작품을 공부한 학교도 있는데 한 작품은, 시의 경우 한 시인의 15-20 작품이고 단편소설인 경우는 한 작가의 5-10 개의 작품이 된다. 발췌문의 길이는 20-30 줄 정도가 적당하고 중략의 빈번한 사용으로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한 학생의 성과

### Criterion A: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extract

발췌문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외운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작가의 생애나 역사적 배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발췌문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업로드된 발췌문을 보지 않으면 어떤 발췌문을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발췌문 중심이 아닌 전체 작품을 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단편소설의 제시문에서 이러한 부분이 두드러졌는데 제시된 발췌문이 전체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파악한 내용을 발췌문에서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리 준비한 서론이나 시대적 배경이 항상 좋은 점수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경우 **subsequent questions** 에서 효과적인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본인이 발표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도 모른채 여러 자료에서 외워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발표과정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개인의 이해를 드러내지 못한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발표는 듣는이에게 설득적으로 다가오며 발표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좋은 점수로 이어질 수 있다.

### Criterion B: Appreciation of the writer's choices

제시된 발췌문이 시인 경우, HL에서 언급했듯이 시에 드러난 수사법과 같이 기술적 용어를 언급하고 있으나 언급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이것은 은유법이다. 직유법이다.’와 같이 언급은 많이들 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사법의 사용이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시와 관계없이 시의 장르적 특징이나 심상의 정의등을 설명하는데 발표의 상당부분을 할애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에 드러난 시의 문학적 특징을 따로 설명하려하지 말고 시의 전체적 맥락에서 어떤 효과를 지니느냐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시의 형식이 어떻게 내용적인 면과 잘 부합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소설이나 희곡, 수필인 경우, 시에 비해 내용적인 면에 치우치기 쉬운데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분위기를 형성하는 작가 고유의 문체적 특징과 사건 전개 방식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파악하고 발표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인 면이 어떻게 내용적인 면과 잘 부합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 Criterion C: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제시된 발췌문을 분석하기에 앞서 작가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의 장황한 설명을 길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시와 소설을 제시문으로 발표할 때 이러한 경향을 많이 보였다. 시인이나 작가의 소개로 발표를 시작하는것은 괜찮으나 많은 경우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듯하며 이런 부분이 길어지는 것은 효과적인 구성에 적절하지 않다. 꼭 필요하다면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 적절히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많은 학생들이 행/줄별로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 행/줄을 분석하고 바로 발표를 마치는 경우는 효과적인 발표 구성이라 볼 수 없다. 소주제를 몇 개 정해서 발췌문을 분석하는 경우가 훨씬 효과적인 구성이 될 수 있다.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형식과 내용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느낌이나 교훈 위주로 발표를 진행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본인의 감상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 Criterion D: Language

앞서 **Higher Level**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읽는 것과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여러 **moderator** 들이 **examiner report** 에 언급하고 있는 공통된 부분이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을 보고 읽는 것 같다는 것이다.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발표하는 것과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학교들은 이 점을 유념해서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긴장으로 인해서 머뭇거리거나 더듬는 것은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이것이 지나치면 자신감 없는 발표로 점수에 반영이 되기도 한다. 매년 평서문으로 발표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평서문으로 발표를 마치고 교사의 질문에 존댓말로 하는 등은 자연스럽게 못하다. 발표는 듣는 대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구어체 존댓말로 해야 한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앞서 **Higher Level**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B Subject Guide** 와 **feedback form** 을 항상 살피도록 해야 한다.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feedback form** 을 참고하는 것으로 수정될 수 있다.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문학은 해석에서 많이 열려 있고 개인의 독창적인 분석을 요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일방적인 수업보다는 토론과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게 훈련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8 분의 **commentary** 와 2 분의 **subsequent questions** 를 지키고 있으나 예전처럼 15 분동안 이어진 학교도 있었다. 또한 학생의 **commentary** 가 8 분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5 분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교사는 학생의 **commentary** 가 8 분가량이 되도록 지도하고 녹음과정에서 이끌어야 한다. 시간 제한은 **Self taught** 과정의 학생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으로 **IOC** 와 **IOP** 가 각각 10 분의 분량으로 각 10 분을 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10 분 미만으로 발표한 학생들은 다수 있었다. 시간 제한은 점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반드시 시간에 맞춰 발표를 구성해야 한다.

간혹 교사가 녹음을 시작할 때 학생의 수험번호, 이름, 나아가 작품과 **guiding questions** 까지 대신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이 본인의 수험번호와 이름을 말하고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Guiding questions** 는 어디까지나 학생에게 **commentary** 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학생이 **guiding questions** 에 답하는 형식의 **commentary** 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학생의 **commentary** 부분에서 **guiding questions** 에 대한 답이 설명되었다면 **subsequent questions** 에서 **guiding questions** 를 반복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Guiding questions** 는 두 개를 넘지 말아야 하며 각각 형식과 내용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해야 한다. 간혹 한 질문에 여러 가지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한 질문에 한 가지만 묻도록 해야 한다.

## Higher level and Standard level written assignment

###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6	7-9	10-12	13-15	16-18	19-20	21-25

### 제출된 작품의 범위와 적합성

각 학교에서 선택한 번역문학작품은 PLT 에 지정된 작품으로 적합했으나 몇몇 학교들은 이미 PLT 목록에서 제외된 중단편 작품 한 편을 선택하여 학습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한국작품과 번역문학 작품을 비교분석하거나 간혹 PLA 지정작가의 한국문학 작품을 비교분석한 예도 있었다. 또한 Reflective Statement 작품과 Written Assignment 작품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선택된 번역작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특정 4~5 작품으로 한정되어 Essay 의 주제와 논점들이 중복되거나 유사했다. 또한 Essay 의 주요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평론에서 다뤄진 주제들이 많아 학생들의 문학작품에 대한 통찰력있는 안목과 견식을 드러내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에 맞는 Essay 의 구성과 전개는 향상되었다. 반면에 작가의 의도에 따라 설정된 문학요소나, 장치, 상징과 의미 등의 해석을 나열하거나,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나 요소의 요약정리 또는 작품의 외적 정보에 대한 서술이 분석적 내용보다 많은 에세이들이 다수였다. 이는 학생들이 작품을 이해하고 연구한 주관적인 관점과 논제가 부분적인데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교사들은 번역작품을 선택할 때 다양성을 고려하고, 학생들은 선정된 작품을 철학과 과학, 역사, 종교, 사회, 문화 등에 접목시켜 문화적 특수성이 어떻게 문학 작품의 주제와 논점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고민하며 작품을 심도있게 읽어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의견과 논점이 충분히 반영된 주제를 선정할 수 있게 독려해야 한다. 학생들은 그 주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타당한 논증을 통해 설득력 있는 Essay 를 써야 한다.

###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한 학생의 성과

#### 1.워드 카운트 수행 과제 이후 :

Character count 과제 수행시 대부분의 Essay 가 작품의 줄거리 요약이나 피상적인 문학요소에 대한 거론이 주 내용이였다면, Word count 과제 수행 이후 Essay 는 그 구성과 전개가 향상되었으며 학생들의 주관적인 관점이 반영된 측면에서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문학 요소의 의미나 상징들을 잘 해석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작품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 논증은 부족했다. 또한 본문에서 발췌한 예시문이나 사건과 상황을 제시하고 줄거리 재요약에 그치는 Essay 도 다수였다.

학생들은 **Essay** 에 번역작품의 형태와 구조, 기술, 스타일 등 모든 항목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작가가 선택한 의도들이 작품에서 얼마나 조직적이고 의미있게 쓰이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특정한 한 의미가 작품 전반에 어떻게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생의 통찰력있는 분석이 반영된 **Essay** 를 써야 한다. 즉 작품을 심층적으로 정독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이해한뒤 주제를 선정하여 **Essay** 형식에 적합한 구성과 전개를 지닌 글을 써야 한다. 이런 논점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word count** 방식이 적합하다.

## 2. 워드 카운트에 포함되는 항목 (RS: 300- 400 단어. WA: 1200 -1500 단어)

- 서론
- 본론
- 결론
- 인용문

## 3. 워드 카운트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acknowledgements 승인
- 참조어 (삽입구 또는 넘버링 포함)
- Footnote or endnotes (참조어의 한에서 포함)
- bibliography 참고 문헌 일람표
- appendices 부록

## 4. Uploaded Written Assignment & Reflective Statement

2016 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Written Assignment & Reflective Statement upload** 방식은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듯 보인다. Upload 방식이 통일되지 않았고, 학교이름/학교 코드와 수험번호, 학생이름, 레벨까지 표기되어 uploaded 된 **Essay** 들이 많았다. 개정된 **Uploaded Written Assignment & Reflective Statement** 에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지에 학생이 선정한 주제(제목)와 모든 **Essay** 페이지 우측 상단에 학교코드가 제외된 학생의 수험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Self-taught** 학생들은 표지의 주제(제목) 상단에 코스표기를 권장한다.

## 5. Comments on Criteria A, B, C, D, E

### Criterion A: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the reflective statement

**Interactive oral** 직후 작성하는 짧은 글로 **Interactive oral** 에 대한 정리, 복습 혹은 평가/분석의 성향을 띤 일종의 감상문이다. 이는 **Interactive oral** 과정에서 작품의 문화적, 맥락적 이해가 어떻게 얼마나 발전되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RS** 가 토론을 통해 얻은 정보를 보고서의 양식으로 작성하거나, 토론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글에 그친다. 또한 작품의 줄거리나 에세이를 요약정리 하거나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과 미사여구로 가득한 내용을 썼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문화적, 문맥적 이해와

진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은 **RS** 를 통해 토론의 과정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확장되고 전개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써야 한다.

**Self-taught** ; 논문 초록 형식으로 **RS** 를 작성하되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과 미사여구적 반응을 진술하거나, 작품의 재서술 혹은 **Essay** 를 요약하는데 그치면 안된다. 선택한 문학 작품에 대한 자신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의 이해와 작품의 문맥적 이해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 Criterion B: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번역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 학생들이 선택한 주제의 범위, 그리고 그 특성을 얼마나 수준있게 다루고 있는가의 측면이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학생의 통찰력있는 논점과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줄거리 요약이나 외적 정보를 서술한 예가 많았다. 문학 장치의 모든 요소를 요약정리하듯 서술했거나 본문 내용을 장황하게 서술한 **Essay** 도 다수였다. 이 항목에서 점수를 획득하려면 번역문학 작품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좁은 의미에서 폭넓은 의미로 확장되어가는 분석적인 글이어야 한다.

### Criterion C: Appreciation of the writer's choices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문학적 특징과 그 효과 및 사용에 대한 분석이다. 학생들은 작가가 특정한 언어나 구성, 문체등을 선택한 이유와 그것이 주제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Essay** 들은 문학적 요소의 상징과 의미를 해석하고 있지만 그것이 작품 내에서 어떤 독특한 효과를 지니는가에 대한 분석과 서술을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논증을 위해 예문을 제시하고 작품의 내용이나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친 부분이 아쉬웠다. 작가의 문학적 기술에 대한 학생 개인의 분석적 논증이 있는 **Essay** 여야 한다.

### Criterion D: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Essay** 는 기본적인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서론에는 **Essay** 주제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인 논점과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고, 본론에서는 이 논점을 타당하게 입증해나가는 분석적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론에 논점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분석의 방향이 제시되지 않거나, 본론에서 지나치게 많은 본문을 인용하여 삽입한 **Essay** 들이 다수였다. 본론에서 작품에 대한 정보나 관련 지식의 과도한 서술, 작가론적 언급등 **Essay** 외적 요소들이 장황하게 사용되어 **Essay** 의 논점이 흐려지고 설득력을 획득하지 못한 글 또한 다수였다. 즉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Essay** 의 형식을 갖추고 응집력있는 문단을 전개해야 한다. 이 응집력있는 문단들이 일목요연하게 엮인 글 속에서 학생의 논증과 그 주장의 발전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Academic Honesty** 를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각주나 참고문헌 목록 등 자료의 출처를 적절한 형식을 활용하여 반드시 밝혀야 한다.

### Criterion E: Language

예년보다 언어사용 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와 문장과 문맥의 호응이 부적절하여 **Essay** 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글들이 있었다. 또한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려다 오히려 **Essay** 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게 전달되지 못하는 예도 있었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단어를 많이 구사한다고

해서 수준 높은 **Essay** 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단어의 의미와 그 활용을 이해하고 논증에 대한 설득력있는 전개를 위해 적절한 단어와 문장의 사용이 요구된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1. **Part1** 은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시간과 공간의 무한한 산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술, 철학, 사회, 역사, 과학 등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문학 작품의 이해와 내면화를 위해 작품이 문학적 특수성과 그 내용을 이해, 개인과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작품과 연결,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등의 다각도에서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번역 작품의 폭넓은 선택을 권장한다. 가이드북의 지침에 따라 번역문학의 학습목적 방향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2. **Essay** 의내용과 논점을 명확하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을 사용하고, 서론/본론/결론의 **Essay**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Academic Honesty** 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각주, 참고자료 목록 및 자료 인용 규칙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 또한 주제에 대한 주관적이고 독창적인 입장을 일관성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논점들이 필요하다. 본문에서 발췌한 장문의 인용은 지양해야 한다.

**Reflective Statement** – 토론 과정을 통해서 문화적이해와 맥락적 이해가 얼마만큼 또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다루어야 한다. 토론과정의 일지나 개인 감상, 작품의 외적 정보의 나열, 줄거리 서술, 에세이의 요약제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 **RS** 가 될 수 없다.

3. 반드시 **PLT** 에 있는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

4. **Uploaded** 조건항목을 따른다.

5.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 Higher level paper one

####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4	5-8	9-10	11-12	13-14	15-16	17-20

###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시험은 선택한 제시문을 분석하는 한 편의 **commentary** 를 작성하는 시험으로서,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제시문을 적절히 분석하고 그 분석 내용을 **commentary** 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즉 전체적 구성 및 전개가 논리성과 통일성을 갖춘, 직렬적 구성의 **commentary** 를 써야 하는 시험이다. 예년에 비하여 서론 및 결론을 갖춘

commentary 들이 많았는데, 그에 비하여 글 전체의 구성 및 전개가 논리적이고 통일성을 갖춘 설득적인 commentary 들은 부족하였다. 서론 및 결론을 형식적으로만 갖추어 쓸 것이 아니라, 글의 모든 부분이 제 위치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ommentary 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러한 논리적이고 통일성 있는 전체 구성 및 전개를 통하여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독자(여기에서는 examiner)에게 효과적이고 설득적으로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주어진 제시문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서술자 또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잘한 학생들은 많았으나, 제시문에 설정되어 있는 각각의 문학적 장치 및 요소 등의 이해와 분석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제시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표현하기 위하여 작가가 활용한 소재 및 제재, 표현, 세부적인 장치 등과 그것들의 효과까지를 보다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 학생들이 잘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하여 학생들의 언어 표현적 측면에서의 수준이 높았다. 국어 어문 규범 준수,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문학적 용어 및 이론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춘 학생들도 예년에 비하여 현저히 많았다. 이러한 문법적, 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 및 분석 내용을 적절히 표현하였으며, 예년에 비하여 각 제시문에 활용된 문학적 장치의 분석을 비교적 다양하게 시도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역사적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내재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반영론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학생들도 예년에 비하여 현저히 많았다.

## 학생들이 각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1 번 문제(산문)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올해의 제시문은 소설에서 발췌된 부분으로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 및 그의 심리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심리와 그들 간의 관계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많은 학생들이 제시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상황과 주인공의 심리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잘하였다. 또한 소설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적인면서도 다양한 문학적 장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학생들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히 많았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시문에서 주인공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서술자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매우 많았다. 다양한 문학적 장치에 대하여 적절한 문학적 용어를 사용하며 분석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앞서 언급하였지만,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언급하더라도 정작 매우 중요한 문학적 장치 하나를 빠뜨린다면 보다 적절하고 깊이 있는 commentary 를 작성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항상 작가가 활용한 문학적 장치 및 표현 등을 빠뜨리는 것 없이 꼼꼼히 살펴며 분석해야 할 것이다.

2 번 문제(운문)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올해에 출제된 시 작품은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및 그러한 상황에서 바라보는 역사적 상황, 시적 화자가 취하는 타인의 상황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관점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시적 자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심리 분석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작품이다. 올해의 경우, 제시문에 주어진 작품 발표 연도와 작품 내에 나오는 시어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반영론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시도한 학생들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히 많았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적 배경 또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만 할 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과 타인의 상황에 대한 관점 및 그러한 관점에서 오는 심리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매우 많았다. 이러한 깊이 있는 분석은 작품에 나타나는 낱말의 시어 및 시구에 대한 꼼꼼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은 항상 낱말의 시어 및 시구를 꼼꼼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년에 비하여 문학적 이론에 대한 지식을 잘 갖춘 학생들이 많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학적 장치의 분석을 시도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적절한 문학적 용어를 사용하며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문학적 장치를 분석할 때에는 단순히 참고서에 나오는 장치의 일반적 효과만 서술할 것이 아니라 각 작품에 나타나는 특정적 상황 및 주제 등과 연관된 장치들의 구체적 효과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치들의 효과를 주제 및 시적 화자의 심리 등과 깊이 있게 연관 지으며 분석해 내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쉬웠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무엇보다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이 좋은 **commentary** 를 쓰기 위한 기본 소양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작품을 읽은 후 참고서의 도움 없이 스스로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작품 분석을 적절히 그리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 지식 또한 필요하므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문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 지식 또한 갖추도록 격려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함께 학습하면 좋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학적 장치 및 장르에 대한 이론 등의 문학 이론에 대한 것을 학습할 때에도 참고서 등에 일반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읽고 학습하기보다는, 그러한 일반적 이론을 토대로 각 작품에서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장치들의 구체적 효과를 학생들 스스로 분석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commentary** 를 작성할 때에 전체적 구성 및 전개가 논리적이고 직렬적이며 통일성을 갖춘 **commentary** 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학생들이 더욱 훌륭한 **commentary** 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commentary** 작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개요를 작성하도록 격려하여 주고, 개요를 작성할 때에도 자신의 분석 내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설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구성 및 전개를 항상 고려하며 작성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하여 주면 좋을 것이다.

## Standard level paper one

###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2	3-5	6-8	9-11	12-14	15-17	18-20

##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시험은 선택한 제시문을 읽고 그것의 내용 및 설정된 문학적 장치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한 편의 **commentary** 로 작성하는 것이다. 즉, 논리적이고 통일성 있는 구성 및 전개로 갖춘 직렬적 구성의 **commentary** 를 학생들은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예년에 비하여 서론과 결론을 갖춘 **commentary** 들이 많았으나, 전체적인 구성 및 전개에 있어 논리성이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commentary** 들이 많았다. 학생들은 단지 형식적으로 서론과 결론만 넣어 쓰기보다는 글의 전체 구성 및 전개가 논리성과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여 자신의 분석 내용을 보다 설득적으로 전달하는 글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Standard Level** 의 경우, **Higher Level** 의 **Paper One** 시험과 달리 제시문 다음에 도움 문제가 두 개 이상 주어지는데, 이는 대부분 제시문에 사용된 특징적인 문학적 장치에 대한 것이거나 제시문의 내용을 적절히 파악하는 데에 있어 꼭 살펴야 할 내용적 요소에 대한 문제들이다. 학생들은 이 문제들의 내용을 반드시 살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문의 주제 또는 그 부분을 통하여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적절히 도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commentary** 에 넣어야 한다. 그런데 **commentary** 작성 시 문제들 중 한 가지 이상의 내용을 빠뜨린 채 작성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문제들 각각에 대한 표면적 분석을 글 속에 병렬식으로만 서술할 뿐, 그것들을 제시문을 통하여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 또는 작품의 주제, 독자에게 주는 효과 등과 연관시킨 깊은 분석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 학생들이 잘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어느 문제를 선택하였느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예년에 비하여 제시문의 분위기 및 내용을 잘 파악한 학생들이 많았다. 특히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토대로 제시문의 주제 및 서술자 또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과 연관시켜 잘 이해한 학생들이 예년에 비하여 많았다. 그리고 문학적 용어를 대체적으로 적절히 사용하였으며 각 장르의 이론을 전반적으로 잘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어 어문 규범의 준수,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어휘의 적절한 사용 등과 같은 언어 표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이 각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1 번 문제(산문)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은 소설에서 발췌된 것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와 상징적 제재에 대한 주인공의 감정을 잘 이해하였다. 특히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두 공간의 차이점과 그 각각에 대한 주인공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주인공의 심리 변화 및 공간들에 대한 주인공의 감정 등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제재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야 하는데 그것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학생들이 매우 많았다. 또한, 이러한 제재의 상징적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겪은 과거의 비참한 삶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학생들이 매우 많았다. 학생들은 제시문을 읽을 때에 항상 제시문의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읽으며 주인공이 처한 상황 등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문학적 장치 분석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하여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분석하려 노력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문학적 용어 또한 적절히 사용하는 학생들 또한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치 분석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에 비하여 각각의 문학적 장치가 주제(제시문을 통하여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거나 독자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는 구체적 효과에 대하여 깊이 있게 분석한 학생들이 적었다. 문학적 장치에 대하여 분석을 할 때에는 참고서 등에 나오는 장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그대로 옮겨 쓰듯이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 및 주제와 연관시키며 장치들의 효과를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한다.

2 번 문제(운문)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시에 나타나는 분위기, 시적 화자의 상황 및 심리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특히 내재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반영론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장르적 이론과 문학적 용어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춘 학생들도 많았으며, 예년에 비하여 다양한 장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작가가 설정한 여러 문학적 장치들을 단순히 언급만 하거나 참고서에 나오는 장치들의 일반적 효과에 대한 설명을 단순히 익혀 옮겨 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에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와 시적 화자의 상황 및 심리 등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각 장치들이 하는 역할이나 주는 효과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부족한 **commentary** 들이 많이 있어 아쉬웠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전체적으로 글의 구성 및 전개를 논리적이고 통일성 있게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론과 결론을 형식적으로는 갖추었으나, 글 전체의 구성 및 전개에 있어 논리성 및 통일성이 결여된 **commentary** 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항상 개요를 작성한 후 **commentary** 를 작성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면 학생들이 보다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글을 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학 이론 등을 학습할 때에는 참고서 등에 나오는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만을 익힐 것이 아니라, 문학적 장치들을 각 작품의 특정적 상황 및 주제 등과 연관시키며 그것들의 역할 및 효과를 학생 스스로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격려하고 도와줄 것을 권한다.

이와 더불어, 역사적 배경이 반영된 작품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 또한 학생들이 갖추 수 있도록 교사들이 지도할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Standard Level** 의 경우 주어지는 도움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빠뜨린 채 **commentary** 를 쓰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항상 제시문 다음에 나오는 도움 문제들을 꼼꼼히 살피고 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며 **commentary** 를 작성하도록 지도하여 주면 더욱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Higher level paper two

##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4	5-8	9-11	12-14	15-18	19-21	22-25

## Standard level paper two

##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4	5-8	9-11	12-14	15-16	17-19	20-25

##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비교와 대조의 방식으로 답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야 하는데 우선 질문을 잘 파악해야 한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질문과 무관하게 공부했던 두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묻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파악한 질문에 대한 답을 비교와 대조의 형식으로 구성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리 준비한 듯한 장르적 특징을 서론에 길게 설명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다. 피상적인 답이 아닌 작품에서 구체적 근거를 들며 답을 작성해 나가야 한다. 전체적인 책의 줄거리나 인물 소개는 한정된 시간에 질문에 대한 에세이를 써 내야 하는 시험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다. 주장/설명하는 바를 단순 언급만 하는 것이 아닌 작품속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뒷받침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들이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점수가 나뉜다. 비교와 대조의 방식은 각각의 작품을 따로 따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두 작품간의 비교 대조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들이 잘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여러 examiner 들이 examiner report 에 언급하고 있는 공통된 부분이 “공부한 작품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다” 였다. 많은 학생들이 작품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Criterion C 에서도 향상을 보이고 있다. 매년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으나 점점 많은 학생들이 이 Criterion 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riterion C 는 작가의 문체적 특성을 포함한 장르적 특징등의 서술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답을 구성하는 흐름속에 적절히 Criterion C 의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로 문단을 내어 Criterion C 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의적으로 보면 인물 구성 사건 배경 등의 설명도 이 Criterion 에 포함되나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루고 있는 작품만의 구체적인 문학적 특징이 다뤄져야 한다. 나열식의 언급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예를 들어 액자 구성이라고 언급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액자 구성이 작품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

## 학생들이 각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 장편소설

1 번과 2 번이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는 질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2 번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한 질문이었다. 장편소설은 중단편소설과 더불어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부한 문학장르였는데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을 예로 들어 장편소설 문제에 답한 학생들이 올해에도 있었다. 이 작품은 중단편소설로 주의해야 한다.

**Question 1 :** 사실적 표현의 문학적 기법을 묻는 질문이었다. 주로 인물의 서술방식에 초점을 두어 논했다. 배경을 들어 이 질문에 답한 학생들도 꽤 있었다.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답을 전개해 나간 학생들 가운데 인물이나 배경의 묘사나 서술 방식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주제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Question 2 :** 작품의 사회반영적 측면을 다루는 문제였다. 장편소설을 공부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문제로 질문의 특성상 열려 있는 문제로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학생들의 작품을 둘러싼 사회 역사적 배경 등의 지식이 비교적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1960 년대, 1970 년대의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작품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다만 줄거리 위주의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말고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충분히 설명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다뤄야 한다.

**Question 3 :** 선택한 학생이 거의 없어 논하기가 어렵다.

### 중단편소설

올해에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부한 문학장르였다. 줄거리 위주의 단편적인 내용의 나열이 아닌 질문에 초점을 두고 깊이 있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Question 4 :** 선택한 학생이 거의 없어 논하기가 어렵다.

**Question 5 :** 주제를 강조하는 문학적 기법과 그 효과를 묻는 질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김동인의 ‘감자’로 답을 하고 있고 그 외 황석영, 이상 황순원등의 작품으로 답하고 있다. 문학적 기법을 묻는 질문인 만큼 Criterion C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적절히 다뤄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줄거리는 굳이 소개 안 해도 되고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Question 6 :** 통틀어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질문으로 작품의 배경에 관한 질문이다. 주로 공간적 시간적 배경으로 나뉘 다루고 있으며 주제와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다만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그 시대적 배경이 자유당 정권 시절인데 박정희 정권시대로 잘못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었다. 5번 문제에서도 언급했듯이 줄거리 위주로 에세이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 시

시 장르를 공부한 학생들은 대부분 7번과 8번 문제를 선택해서 답하고 있다.

**Question 7 :** 시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입장에 관한 질문이다. 주로 김소월의 시와 박목월의 시가 대표적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이별을 바라보는 특히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관점에서 화자의 입장차이를 다루고 있다.

**Question 8 :** 시 장르를 공부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질문이다. 시에 드러난 반복과 대조의 효과를 묻는 질문으로 이 같은 특징이 잘 드러난 시 속에서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아쉬운 점은 두 작품간의 비교 대조를 통한 분석이었다. 각각의 시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으나 두 작품을 효과적으로 비교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Question 9 :** 선택한 학생이 거의 없어 논하기가 어렵다.

## 희곡

매년 적은 수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문학장르로 올해도 소수의 학생들이 공부한 문학장르였다.

**Question 10 :** 선택한 학생이 거의 없어 논하기가 어렵다.

**Question 11 :** 희곡에서 사용된 극적 요소의 효과를 묻는 질문이었다. 희곡을 공부한 학생 대부분이 선택한 질문으로 작품속의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두 작품을 효과적으로 비교한 답변이 많았다. 희곡 장르적 특징, 예를 들어 소품의 사용이나 음악적 요소등과 질문을 연관지어 답을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작품으로는 이근삼, 유치진, 차범석의 작품이 많았다.

**Question 12 :** 소수의 학생이 선택한 질문이었다. 대화의 사용에 관한 문제였는데 질문에 초점을 맞춰 아주 효과적으로 답을 전개한 학생도 있었지만 질문에서 벗어나 줄거리와 사건위주의 글을 전개한 학생들도 있었다.

## 수필

희곡과 더불어 소수의 학생들만이 공부한 문학장르이다.

Question 13 : 선택한 학생이 거의 없어 논하기가 어렵다.

Question 14 : 선택한 학생이 거의 없어 논하기가 어렵다.

Question 15 : 수필을 선택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한 질문이다. 공지에 빠져 있을 때나 어려운 선택의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그러한 상황이 작품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묻는 질문이다. 주로 법정과 김소운의 수필로 답을 전개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이해는 보였으나 두 작품의 비교 대조를 통한 분석이 아쉬운 학생들이 많았다. 수필 장르적 특징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글이 너무 개인적, 주관적 감상에 치우친 경향이 두드러졌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올해도 여전히 중단편 소설로 장편소설의 문제를 선택하여 답을 작성한 학생도 있었고 외국문학으로 답을 작성한 학생들이 있었다. **Subject guide** 와 **subject report** 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Paper 2** 는 **Part 3** 에서 공부한 작품간의 비교 대조를 통한 분석이 핵심이다. 질문을 두 작품으로 풀어나가는 것인데 질문에 대한 두 작품의 공통점/유사점, 차이점/다른점을 들어 진행해야 한다. 반복되는 면이 있지만 **Paper 2** 의 각 **criterion** 을 살펴보면 **Criterion A** 는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Criterion A**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이다. 주장/설명하는 바를 단순 언급만 하는 것이 아닌 작품속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뒷받침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들이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따라 점수가 나뉜다. **Criterion B**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 대조의 방식이다. 비교와 대조의 방식은 각각의 작품을 따로 따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두 작품간의 비교 대조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Criterion C** 는 작가의 문체적 특성을 포함한 장르적 특징등의 서술이다. 이 **Criterion**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을 구성하는 흐름속에 적절히 **Criterion C** 의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로 문단을 내어 **Criterion C** 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의적으로 보면 인물 구성 사건 배경 등의 설명도 이 **Criterion** 에 포함되나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루고 있는 작품만의 구체적인 문학적 특징이 다뤄져야 한다. 나열식의 언급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예를 들어 액자 구성이라고 언급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액자 구성이 작품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다뤄야한다. **Criterion D** 는 글의 흐름이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글의 전개가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Criterion** 이다. 비교 대조의 방식은 **Criterion B** 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글 자체의 흐름만으로 판단하는 **Criterion** 이다. 특히 서론이 중요한데 질문이나 주어진 토픽에 집중해서 두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좋다. 질문이나 주어진 토픽과는 무관하게 소설의 장르적 특징이라든가 시, 희곡, 수필의 장르적 특징으로 서론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Criterion E** 는 다른 네개의 **Criterion** 과는 무관하게 점수가 나가는 부분이다. 맞춤법도 중요하게 보지만 문장력을 중점적으로 본다.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가? 적절한 단어/종결어미를 구사하고 있는가? 글의 성격과 맞는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가? 맞춤법이나 문법적 측면에서 계속되는 실수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문장의 통사구조가 올바른가? 등을 유념하여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Criterion** 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글씨도 중요한 요소이다. 단기간에 나아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너무 흘려 써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글씨체는 점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